

## 모자 상호작용 주제 중심의 반성적 어머니 토론 모임에서 나타난 양육태도 변화과정 탐색

이재경<sup>1)</sup>

---

### 요약

---

본 연구에서 반성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 어머니 토론 모임은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들이 어떻게 양육태도의 문제를 인식, 적용, 해결해 가는지에 대한 변화 과정을 탐색하기 위하여 경기도 E시에 위치한 어린이집의 세 학부모들과 11주간 연구자의 진행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 반성적 어머니 토론 모임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정보를 비교 분석하면서 본인의 양육태도 문제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을 때 양육스트레스가 감소되고, 같은 주제의 지속적이고 반성적인 토론에서 본인에게 필요한 양육태도를 재정립할 수 있었다. 그리고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는 양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반성적 사고임을 시사하였다. 반성적 어머니 토론 모임에서 어머니의 반성적 사고를 증진시키는 것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역량 있는 어머니로 성장하게 지원할 수 있는 교육적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주제어:** 반성적사고, 양육스트레스, 양육태도, 모자 상호작용, 어머니 토론 모임

---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최초로 맺게 되는 사회적 관계는 어머니와의 관계이다. 태어난 직후부터 형성되는 모-자 관계는 최초의 대인관계인 동시에 가장 밀접한 사회적

---

1) 산들마을현대어린이집 원장

관계이기 때문에, 아동의 정서 및 성격 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이양희, 이정미, 2001). 초기 모-자 관계가 중요한 것은 초기의 모-자간 상호접촉에 의해서 경험하게 되는 내용과 질이 유아의 외부세계에 대한 태도를 결정짓게 되기 때문이다(이양희, 이정미, 2001). 모-자관계에서 어머니가 애정적이어서 자녀의 욕구에 민감하고 반응적이며 적절한 자극을 풍부하게 제공하여, 긍정적 모자 관계가 이루어진 유아가 외부세계에 대해 보다 안정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Ainsworth, 1973; Clarke-Stewart, 1973; 이양희, 이정미, 2001, 재인용)고 한다.

모자 상호작용은 모-자 관계의 균형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모-자녀가 상호교류를 통해 끊임없이 상호 자극, 강화, 반응하는 역동적인 조절과정(Whitt & Casey, 1982; 안소연, 2011, 재인용)을 의미하며, 모자 상호작용시 부모 역할은 중요하다. 부모는 모자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변화를 주도하는 매개자 역할을 하는데(Kuczynski, 2003; 정계숙, 이은하, 고은경, 2006, 재인용) 모-자관계에서 부모는 부모자신의 욕구와 충돌하는 외부세계를 분석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내적 자아의 힘, 즉 양육과 관련된 현실적 여건과 자녀의 요구, 그리고 적합한 부모의 역할에 대해 분석하고 숙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부모의 역할은 점진적으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인 역할들에 비해 역할 수행을 위한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부여받게 되는 것이므로 부모로서의 역할전환은 쉽지 않다(이랑, 2003). 자녀의 출생은 한 가족의 긍정적 전환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자녀의 출생으로 수반된 생활의 변화, 예로 지출의 증가, 수면시간의 부족이나 방해, 부모 자신만을 위한 시간의 감소 등은 부모들에게는 일부 부정적으로 지각될 수도 있기(Crnic & Greenberg, 1990; Ragozin, Robinson & Basham, 1983; 민성원, 2010, 재인용) 때문에 점점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다.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지각하는 스트레스, 곧 양육스트레스(Abidin, 1990; 김세루 외, 2010, 재인용)로 이어지기도 한다. 양육스트레스는 일시적 혹은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근심, 걱정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누적된 일상적 스트레스 상태(김세루 외, 2010; 임순화, 박선희, 2010)로 부모의 양육태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태도 및 행동인 양육태도(Becker; 배선미, 2010)는 모-자 관계의 질을 결정해 주고 자녀의 지적, 정서적, 성격적 측면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데(이원영, 1983), 어머니의 장기간 지속되는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로서의 모성경험을 부정적으로 느끼게 하고 생활전반에 영향을 미쳐 가정 분위기를 어둡게 하기도 한다(박해미, 1994; 김세루 외, 2010, 재인용). 이러한 양

육스트레스는 양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을 약화시켜 역기능적이고 부당한 양육행동으로 이끌기도 한다(박응임, 1995; Abidin, 1990; 이선애, 2012, 재인용) 또한, 이러한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자신의 삶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한 가족 관계의 불안정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으로 자녀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Crinic & Greenberg, 1990; 이선애, 2012, 재인용). 그러므로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부모역할에 대한 신념과 가치를 확고히 하고 긍정적인 모자 상호작용을 위하여 자녀의 발달에 따른 양육방법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부모는 부모역할과 양육에 대한 자기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양육하고 상황에 따라 이를 능동적, 주체적으로 반성하여 스스로 역량을 발전시키고 실천시킬 수 있어야 한다(노진형, 정계숙, 2006).

그러므로 부모교육은 부모들 각자에게 필요한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수행될 수 있도록 자기 인식 증진과 문제해결(노진형, 정계숙, 2006) 중심의 부모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안으로 초점을 두어져야 한다. 부모교육이 부모들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 부모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분명하게 하고 각자 부모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부모 스스로 찾아 진단하고 수정하게끔 도와주는 부모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형식의 부모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모 스스로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분석하고 생각함으로써 더 전문적인 양육지식과 양육 행위에 대한 방향결정이 이루어지는 반성적 사고(손은정, 2003)의 경험이 필요하다.

반성적 사고는 연속적인 토론의 과정에서 촉진(Whipp, 2003; 이영미, 2006, 재인용) 되는데, 토론은 하나의 논제에 대하여 이성애 입각한 합리적인 판단을 추구하기 위한 탐구와 주장의 과정이다. 토론을 통해 생각이 서로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 참여하여 주어진 문제를 판단하고, 각자의 다양한 가치가 표출되어 자신의 가치 추구하고 타인의 가치 추구를 비교 대조하는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사고력 및 스스로 문제의 요지를 파악하고 그 해결 방법을 찾게 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을 체계적으로 키울 수 있다(조정선, 2007).

촉진되는 부모의 반성적 사고는 부모가 스스로 과거의 양육 관련 경험과 생활을 검토하고 분석할 수 있게 하고(정계숙, 노진형, 2006),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반성적 사고를 통해 부모들은 모자상호작용 속에서 매 순간 드러나는 양육문제 상황마다 적절한 결론을 도출하게 될 것이다(김태미, 2012). 부모역할에 대한 자기반성은 부모역할의 변화를 가져오는 핵심 요소이며(정계숙, 노진형, 2006), 부모의 반성은 효과적인 부모역할을 하기 위해 중요한 방식(Heath, 2000; 정계숙, 노진형, 2006, 재인용)으로 적용될 것이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반성적 사고와 관련된 부모 교육 연구는 반성적 사고 중심의 모자 상호작용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발달지체유아 모자에 대한 적용 연구(노진형, 2005), 반성적 사고 중심 소집단 부모교육 모임의 경험과 의미(이명지, 2010), 반성적 사고를 강화한 STEP에 대한 부모의 경험 연구(김태미, 2012)가 진행되어 왔다. 이 연구들을 살펴보면 저널쓰기 방식을 이용한 참여자들의 반성적 사고 발달, 반성적 사고 중심 집단 부모교육 모임 경험에 대한 참여자들의 변화 과정 그리고 부모 대화 모임 참여 경험에 대한 참여자들의 반응 및 효과를 나타냈으나, 부모교육 주제 내용에 대한 부모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바탕으로, 본인의 장·단점을 스스로 파악하고 반성 및 개선해 나가려는 개별적 부모 양육 태도 변화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반성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 어머니 토론 모임 속에서 부모들이 어떻게 양육태도의 문제를 인식, 적용, 해결해 가는지에 대한 변화 과정을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성인학습자 역할에 중점을 둔 토론 모임 형식의 부모교육이 부모의 반성적 사고를 촉진하여 부모가 양육태도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긍정적인 모자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자녀양육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부모들에게 효과적인 부모교육방법을 제시하여 부모 스스로 양육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문제해결자가 되므로써 양육의 어려움을 다소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모자 상호작용 주제 중심의 반성적 어머니 토론 모임에 참여한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방법

연구자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한 학부모님이 자녀와의 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문

제로 전문의의 상담을 받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가 너무 힘들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는 또 다른 두 분의 학부모님들도 늘 똑같은 고민을 호소하였다. 연구자가 세분의 학부모님을 관찰했을 때 자녀의 기질, 발달수준,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 및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유사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연구자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두 달에 한번 있는 부모모임에 참석하시는 모든 학부모님들도 대부분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 같은 문제를 갖고 있기에 연구자는 학부모님들이 자녀의 발달 수준을 이해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부모와 자녀관계가 건강해질 수 있는 지 알아갈 수 있도록 연구하였다. 연구자가 6년 동안 부모모임을 진행하면서 관찰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변화되었던 효과적인 방법은 부모 스스로 양육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토론형식 및 지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태도를 훈련시키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 언급된 특별히 자녀와의 관계를 힘들게 생각하고 솔직하게 본인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세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자녀와의 관계에서 발생된 문제의 원인을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자만의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본 연구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적인 문제를 해결위해 협동 연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반성적 사고, 논의, 의사결정, 그리고 실행의 힘을 개발하도록 보장하는 과정인 실행연구(Lewin, 1934; 유기웅 외, 2012)로 진행하였다.

## 2. 연구참여자

연구참여자들은 연구자가 경기도 E시에서 근무하는 어린이집의 학부모들로, 부모 모임 및 등하원시 이루어지는 연구자와의 만남 속에서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호소하였다. 연구자는 양육스트레스로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세 학부모님의 양육 문제를 해결해보는 과정을 통해 양육태도의 변화과정을 연구하고자 세 학부모님께만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였고, 모두 흔쾌히 참여의사를 밝혔다. 참여자들은 양육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정으로 어머니 토론 모임에 참여하였고, 이 모임에서 무언가 변화되고 싶어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참여하게 된 어머니의 배경과 자녀에 관한 사항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에 관한 정보

연구 참여자	연령	직업	학력	자녀
어머니A	46	주부	대학교 졸	남아(만8세) 여아(만2세)
어머니B	35	주부	전문대 졸	여아(만6세) 여아(만1세)
어머니C	34	주부	대학교 졸	남아(만6세) 여아(만4세)

### 가. 세 연구참여자의 가정 환경

#### 1) 어머니A

어머니A는 사형제중 셋째이며, 부모님들이 자녀의 의견과 감정을 무시하고, 자녀의 마음을 전혀 읽어주지 않는 환경에서 자랐다. 특히, 아버지는 무섭고, 억압적이며, 지나친 규제와 통제를 하였다. 자녀에게 칭찬보다 비난을 더 많이 하였던 아버지는 어린 시절 어머니A를 늘 위축시켰다. 어머니A의 부모님들은 본인들이 정해진 틀 안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용납하지 않았다. 어머니A는 자라면서 선택의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본인이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당황스럽다고 하였다.

#### 2) 어머니B

어머니B는 할머니, 고모, 삼촌과 함께 대가족에서 자랐다. 대가족 큰 며느리로 시집 살이에 늘 참고 살아야 했던 친정어머니는 자녀와 함께 할 시간이 거의 허락되지 않았다. 부모님은 첫째 딸인 어머니B에게 첫째 딸로서의 책임지고 해야 하는 일을 어렸을 때부터 주었고, 친정아버지는 어머니B가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야무지지 않다고 늘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어머니B가 생각하는 친정아버지는 자녀가 선택한 일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험하고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며, 그런 친정아버지가 친정어머니보다 대화가 더 잘 통한다고 하였다.

#### 3) 어머니C

어머니C는 삼남매 중 막내로, 어머니C가 원하는 것은 때를 쓰면 부모님이 모든 걸 다해주었다. 친정어머니는 어머니C의 학교 과제부터 친구관계까지 모든 것을 자녀를 위하여 다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친정어머니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어머니C는 모든 것을 다해준 부모님이 감사하지만, 부모님이 다해주었기 때문에

본인이 의지형이 되었다는 것이 싫었다. 그래서 자녀에게는 본인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아이들의 요구를 잘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였다.

### 3. 자료수집

본 연구는 어머니들의 양육태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부모토론모임 시작하기 전 2013년 7월 6일에 어머니와 자녀가 계획한 주제를 점토를 이용하여 함께 만드는 활동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어머니 토론 모임은 2013년 7월 9일부터 2013년 9월 24일까지 총 11회로 일주일에 한번 모임을 갖고, 시간은 자녀들이 학교와 어린이집에 가서 없는 오전으로 결정하였다. 연구자가 근무하는 곳은 장소가 협소하고 아이들로 인해 조용하게 토론모임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에 연구 참여자들과 함께 조용하게 토론할 수 있는 곳을 논의 하던 중 장소는 연구참여자 집에서 돌아가면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토론모임은 노진형(2005)의 반성적 사고 중심의 모자 상호작용 증진 프로그램에서 ‘모자 상호작용 교육 과정’을 10회의 교육주제로 구성하였고, 이명지(2010)의 반성적 사고중심 소집단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 ‘부모교육 모임의 주제’를 본 연구의 반성적 과제토론으로 매회 활용하였다. 아이들의 문제행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해야할지 분석할 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SBS‘아이가 달라졌어요’ 두편의 동영상에서 두 아이의 문제행동과 각 부모의 양육태도를 보며 아이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아이의 행동에 부모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일지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그리고 토론 모임 진행과정 중에서 어머니들 본인의 양육태도 문제에 대한 인식이 어려운 것으로 연구자는 판단하여, 2013년 7월 6일에 연구참여자와 자녀가 함께 만들기 활동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며 토론하는 시간을 프로그램 1회로 추가하였다.

매회 토론 모임은 참여자들의 동의하에 비디오 촬영하였으며, 그 내용을 그대로 전사하여 기록하였다. 토론 자료 전사는 다음 모임 전까지 완성하려 노력하였고 안 될 경우 토론 모임 동영상을 보면서 당일 토론 모임에서 이루어진 대화 속에 참여자들이 생각해 보아야할 것들을 연구자저널에 기록하여 다음 모임 때 토론 주제로 사용하였다. 참여자 저널은 매회 배운 교육과정의 주제를 실천해 보고 실천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 변화, 또는 자녀와 겪게 되는 모든 것 등을 일주일 동안 2번이상 기록하는 걸로 약속하고, 어머니 모임 날 제출하였다. 참여자 저널은 모임 날 제출하면 연구자가 타이핑하고 그 다음날 돌려드렸으며, 참여자 저널에서 참여자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을 연구자 저널에 기록하여 다음 모임에 질문하였다. 그리고 참여자들의 건의에 의해 7회부터 SBS‘아이가 달라졌어요’ 동영상의 아이 문제행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

할지에 대한 토론 주제 대신 참여자 저널에서 기록된 참여자들이 자녀와 직접 부딪히는 일들을 주제로 토론하였다.

연구자는 어머니 토론 모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면서 참여자들과 이야기 나누고, 공감하는 행위 속에서 참여자들이 무엇이 필요한 지를 체크하고 그에 맞는 각종 정보를 제공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모자 만들기 동영상, 모자 상호작용 학습토론의 과제물, 반성적 과제, 참여자 저널, 토론 모임 전사 자료 그리고 연구자 저널이다.

## 4. 연구 절차

### 가. 어머니 토론 모임 진행

본 연구는 어머니들의 양육태도를 분석하기 위한 모-자 만들기 동영상 촬영, 어머니 토론 모임 순으로 진행되었다.

2013년 7월 6일에 연구자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각 참여자들과 두 자녀가 점토를 이용한 만들기 촬영을 제한된 30분 내에 실시하였다. 2013년 7월 9일부터 2013년 9월 24일까지 11회 어머니 토론 모임이 진행되었으며, 1회기 당 3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다.

어머니 토론 모임에서 이루어진 모자 상호작용 교육과정 토론, 반성적 과제 토론, 동영상 분석 활동, 참여자 저널 중심 토론에서 교육과정 토론과 반성적 과제 토론에 필요한 유인물은 전 모임때 나누어 드려 다음 모임 때 토론을 준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교육과정의 유인물은 참여자가 미리 읽고 인상 깊거나 기억에 남는 곳을 밑줄 쳐서 다음 모임 때 그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하였다. 그러나 유인물 내용이 난해한 경우는 함께 읽어 보고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반성적 사고를 기반으로한 어머니 토론 모임 속에서 부모들이 어떻게 양육태도의 문제를 인식, 적용, 해결해 가는지에 대한 변화 과정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모자 상호작용 교육과정’에서 교육내용을 ‘반성적 사고중심 소집단 부모교육 모임 프로그램’에서 제시한 과제를 절충하여 진행하였다. 그리고 반성적 사고 촉진을 위한 참여자 저널쓰기 활동과 동영상 분석활동이 추가 진행되었다.



## 나. 어머니 토론 모임 진행 중 수정 보안

연구모임 전에 계획된 프로그램은 연구 과정 중 참여자들의 효율적인 반성적 사고 증진을 위하여 일부 프로그램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첫 번째 사항은 동영상 모자상호작용 행동 분석활동의 수정안이었다. sbs ‘아이가 달라졌어요’ 동영상 분석은 매주 다른 케이스로 분석하려 계획하였으나, 참여자들이 한 케이스의 양육태도 문제를 충분히 심도 있게 분석이 이루어진 후 다른 케이스로 바꾸었다. 또한, 참여자 본인의 모자 상호작용 행동 및 양육태도 문제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동영상을 보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동영상속의 부모와 아이의 행동을 분석하려했으나, 참여자들이 아동발달과 상호작용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여 분석보다는 동영상속의 전문가 이야기를 듣는 수준이었다. 그래서 10주로 계획된 짧은 모임기간 안에 이 활동의 궁극적 목표인 참여자 본인의 양육태도 문제 자각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계획되지 않은 참여자 본인의 ‘모-자 만들기’ 동영상 분석 활동을 추가하였다. 그것이 5-1회 어머니모임이었다.

두 번째 사항은 참여자 저널 중심 토론을 후반부 동영상 분석활동의 대체 프로그램으로 추가하였다. 참여자들이 본인의 양육태도 문제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양육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하였다. 참여자 스스로 해결하기엔 역량 부족한 것을 감안하여,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동영상 분석 활동 대신 참여자들의 일상생활 속 본인 양육문제 및 느낌에 대하여 기록한 저널 내용을 중심으로 한 참여자 저널 토론을 추가되었다. 참여자 저널 토론은 참여자 본인의 실제적인 양육문제를 주제로 토론함으로써 다른 토론자들의 다양한 각도의 시선으로 양육문제를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참여자들은 그 과정 속에서 각자 본인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다.

구체적인 어머니 토론 모임 내용 및 목표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어머니 토론 모임 프로그램

회기	활동명	주제	목표
사전활동 (7월6일)	* 점토를 이용한 부모-자녀 만들기 활동 비디오 촬영 (연구참여자와 자녀가 만들기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상호작용에서 연구참여자의 양육태도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 * 부모모임 취지 소개 및 저널쓰기 소개		
1 (7월9일)	부모-자녀 상호작용 교육과정 학습 및 토론	모자 상호작용 및 모자 관계에서 애착의 중요성	- 바람직한 모자 상호작용에 대해 인식한다. - 자녀와의 안정 애착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동영상 부모-자녀 상호작용 행동 분석 I (SBS '아이가 달라졌어요-떼쟁이 민우')		- 상호작용 행동 분석 활동을 통해 본인의 양육태도 문제를 자각한다.
	반성적 과제 토론	부모모임을 통한 변화의 기대 1. 부모모임을 통해 어떤 변화를 기대하나요?	- 자기소개 및 참여목적을 파악한다.
2 (7월17일)	부모-자녀 상호작용 교육과정 학습 및 토론	자녀의 특성 및 부모의 특성 이해 (정서와 기질 중심)	- 자녀의 문제 행동에 대해 다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한다.
	동영상 부모-자녀 상호작용 행동 분석 I (SBS '아이가 달라졌어요-떼쟁이 민우')		- 상호작용 행동 분석 활동을 통해 본인의 양육태도 문제를 자각한다.
	반성적 과제 토론	나의 부모님(원가족)과 이상적인 부모상 1. 나의 부모님(원가족)은 어떤 분이였었나요? 2.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부모란?	-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을 알아본다. - 이상적인 부모는 어떤 건지 알아본다.
3 (7월24일)	부모-자녀 상호작용 교육과정 학습 및 토론	자녀와 긍정적인 관계 형성하기	- 자녀의 문제 행동에 대해 다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한다. - 긍정적인 관계형성의 시도로서 자녀의 장점을 찾아본다. - 자녀의 장점을 찾아봄으로써 자녀에 대한 부적절한 지각과 태도를 수정한다.
	동영상 부모-자녀 상호작용 행동 분석 I (SBS '아이가 달라졌어요-떼쟁이 민우')		- 상호작용 행동 분석 활동을 통해 본인의 양육태도 문제를 자각한다.
	반성적 과제 토론	부모가 생각하는 나 1. 나의 부모님은 나를 어떤 아이라고 생각 했을까요? 2. 부모님이 말씀해주시는 나는 어떤 아이였 나요?	- 자기를 인식하고 내부모를 이해한다. 그리고 자녀의 입장을 이해한다.

회기	활동명	주제	목표
4 (8월8일)	부모-자녀 상호작용 교육과정 학습 및 토론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자기 진단	- 자녀와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바람직한 태도를 알아본다. -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위해 자신의 모자 관계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킨다.
	동영상 부모-자녀 상호작용 행동 분석 II (SBS '아이가 달라졌어요-무법자 강이')		- 상호작용 행동 분석 활동을 통해 본인의 양육태도 문제를 자각한다.
	반성적 과제 토론	나는 어떤 부모인가? 1. 부모로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2. 부모로서 자신이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 부모로서 잘하는 것은 무엇이고,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지 안다.
5 (8월14일)	부모-자녀 상호작용 교육과정 학습 및 토론	효과적인 의사소통 I : 반영적 경청	- 반영적 경청의 의미를 이해한다. - 반영적 경청을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동영상 부모-자녀 상호작용 행동 분석 II (SBS '아이가 달라졌어요-무법자 강이')		- 상호작용 행동 분석 활동을 통해 본인의 양육태도 문제를 자각한다.
	반성적 과제 토론	자녀와의 직접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나누기 1. 어떤 상황이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힘들었나요?	- 자녀와 힘들었던 상호작용을 체크해 보고 상황에 맞는 해결 모색해 본다.
5-12) (8월20일)	모임전 촬영한 '모자만들기' 동영상 분석		- 상호작용 행동 분석 활동을 통해 본인의 양육태도 문제를 자각한다.
6 (8월22일)	부모-자녀 상호작용 교육과정 학습 및 토론	효과적 의사소통 II : 나 전달법	- 효과적인 의사소통방법으로서 나 전달법의 의미를 이해한다. - 나 전달법을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동영상 부모-자녀 상호작용 행동 분석 II (SBS '아이가 달라졌어요-무법자 강이')		- 상호작용 행동 분석 활동을 통해 본인의 양육태도 문제를 자각한다.
	반성적 과제 토론	자녀에 대한 기대 및 자녀의 이해 1.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기대치는? 2. 자녀의 장, 단점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아요.	- 자녀에 대해 객관적으로 이해하므로 자녀에 대한 기대를 자녀의 수준에 맞게 조절한다.

2) 5-1회기는 계획되지 않았던 활동이었으나, 어머니들 본인의 양육태도 문제 자각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어머니 본인의 '모-자 만들기' 동영상 분석활동을 추가하였다.

회기	활동명	주제	목표
7 (8월31일)	부모-자녀 상호작용 교육과정 학습 및 토론	효과적 의사소통 III : 칭찬과 격려	-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한 방법으로 칭찬과 격려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운다. - 실생활에서 칭찬과 격려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참여자 저널 중심 토론		- 저널 토론을 통해 본인의 양육태도 문제를 자각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반성적 과제 토론	내 자녀와 입장 바꿔 생각해보기 1. 부모로서 현재 자신의 모습을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아요.(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기대치, 자신이 원하는 자녀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 자녀의 입장이 되어 자녀를 이해한다.
8 (9월3일)	부모-자녀 상호작용 교육과정 학습 및 토론	효과적 의사소통 IV : 제한설정	- 민주적 훈육방법으로 제한 설정의 의미 및 방법을 이해한다. - 실생활에서 제한 설정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참여자 저널 중심 토론		- 저널 토론을 통해 본인의 양육태도 문제를 자각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반성적 과제 토론	내 자녀와 입장 바꿔 생각해보기	-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는지 안다.
9 (9월10일)	부모-자녀 상호작용 교육과정 학습 및 토론	효과적 의사소통 V: 무승부법	- 무승부법의 의미를 이해한다. - 실생활에서 무승부법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참여자 저널 중심 토론		- 저널 토론을 통해 본인의 양육태도 문제를 자각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반성적 과제 토론	나는 어떤 부모인가? 1. 부모로서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2. 부모로서 잘 하고 있는 부분은? (3회 과제와 비교해서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부모로서 잘하는 것은 무엇이고,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지 안다.

회기	활동명	주제	목표
10 (9월24일)	부모-자녀 상호작용 교육과정 학습 및 토론	긍정적 상호작용 유지하기	- 자녀 행동 및 자신의 양육행동에 대해 지각과 태도에 서의 자신의 긍정적인 변화를 인식하고 유지한다.
	참여자 저널 중심 토론		- 저널 토론을 통해 본인의 양육태도 문제를 자각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반성적 과제 토론	부모로서 자신을 돌아보기 1. 모임을 통해 알게 된 부모 본인의 모습은? 2. 모임을 통해 부모로서 변화된 부분은?	모임을 통해 부모로서 알게 된 것과 변화된 것을 안다.

## 5. 자료분석

반성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 어머니 토론 모임 속에서 어머니들이 어떻게 양육태도의 문제를 인식, 적용, 해결해 가는지에 대한 변화 과정을 탐색하기 위해 참여자 저널, 어머니 토론 모임의 토론 전사, 연구자 저널, 모임에 주어진 과제 자료로 분석하였다. 참여자 저널과 모임 과제 자료는 토론 모임에서 다루어진 내용이므로, 자료 분석시 토론 전사자료와 연구자 저널을 중심으로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에 일련의 질서, 체계,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Marshall & Roseman, 1989; 황소영, 2011, 재인용)인 자료분석을 위하여, 토론 모임 전사자료와 연구자 저널을 여러 차례 읽으며 Dewey의 반성적 사고과정 5단계(양연숙, 2002), 제안, 곤란이나 혼란을 문제로 지성화하는 것, 주도적 아이디어 또는 가설의 가정, 추리 작용, 검증 단계 중심으로 범주화시켰다. Dewey의 반성적 사고과정 5단계를 각각 요약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안은 성격이 충분히 파악되지 않은 의심스런 상황에 처하여 곤란과 혼란을 느끼는 것이며 둘째, 지성화는 주어진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는 것, 셋째, 가설은 주어진 요소에 관한 잠정적인 해석 및 그것이 가지고 올 결과에 대한 가설적 예측을 하는 것, 넷째, 추리작용은 가설을 더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가다듬는 일, 그리고 마지막, 가설 검증은 설정된 가설을 기초로 하여 예견된 결과를 일으키기 위하여 실제로 행동을 함으로써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Dewey의 반성적 사고과정 5단계에 대한 설명에서 제시된 정의와 의미를 파악하여 ‘제안단계’를 ‘갈등단계’로, ‘지성화-문제 설정단계’를 ‘문제 탐구 단계’로, ‘가설 단계’를 ‘문제 해결책 제시 단계’로, ‘추리 작용 단계’를 ‘문제 해결책 시도 단계’로, ‘가설 검증 단계’를 ‘문제 해결책 평가 단계’로 대체하였다.

본 연구의 신뢰성과 자료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는 전문 부모교육자는 아니나,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학부모 토론 소모임을 6년 동안 두 달에 한번 진행하며 학부모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돕는 진행자 역할이 훈련되었다. 둘째, 동일한 현상을 연구하는데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는 연구과정(김영천, 1977; 황소영, 2011, 재인용)인 삼각측정법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서수집, 전사, 현장노트(연구자저널) 등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 Ⅲ. 연구결과

모자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변화에 초점을 두고 세 명의 참여자와 함께 10주 과정의 어머니 토론모임을 시작하였다. 연구자가 예상한 주제관련 토론 모임과는 달리, 이 연구 모임은 초기에 참여자들의 분노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겪게 되어 연구자를 당혹스럽게 하였다. 그러나 모자 상호작용 주제 중심의 반성적 어머니 토론 모임 과정 속에서 세 명의 참여자들이 본인의 문제를 조금씩 인식해 가면서 분노도 점점 가라앉고 각자 양육태도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고 해결해가는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 1. 갈등 단계

반성적 사고를 기반으로한 어머니 토론 모임 속에서 세명의 참여자들의 공통된 첫 번째 반응은 양육에 관한 분노표출이었다. 각 참여자들이 자녀에게 화가 난 원인은 달랐지만, 세 참여자들의 분노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점은 이해할 수 없는 아이의 특성이었다.

##### 가. 어머니 A의 갈등 단계

차분하게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말을 잘하는 어머니A는 양육에 관련된 교육이나 정보에 관심이 많고 실천하려 노력하는 어머니이다. 그러나 양육관련 이론과 실제 양육이 일치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의문과 실망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초기 어머니 토론 모임에서, 어머니A는 아이와 남편에 의한 양육스트레스와 효과 없는 상호작용기술로 인해 화가 많이 나 있었다.

##### 1) 분노표출-나를 힘들게 하는 아이와 남편

1회 과제 토론 ‘어머니 토론 모임을 통한 나의 변화’ 주제에서 까다로운 아이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어머니A는 계획되지 않은 첫째 아이였지만, 마음을 잡고 낳기로 하면서 무한 애정을 쏟았다. 어머니A는 본인의 첫째 아이는 무한정 예뻐으나, 아이가 너무 예민하고, 자기 조절이 안 되어, 어머니A가 해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였기에 너무 힘들었다.

자식도 자식인데 그래도 날 힘들게 한 자식은 힘들어. 사실 사람인지라. 그죠?  
(1차 어머니 토론회 자료, 2013년 7월 9일)

둘째아이보다도 더 첫째아이에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어서 모든 걸 첫째아이에게 맞췄는데, 첫째 아이의 반응은 늘 부정적이었다. 어머니A는 첫째 아이의 까다로운 기질적인 면을 이해한다고 해도 화가 나고 동시에 측은하였다. 문안한 성격을 지닌 둘째 아이는 힘든 고비가 있어도 문안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첫째 아이는 너무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나왔다. 어머니A는 첫째아이 때문에 화가 나다가도 또 첫째 아이를 생각하면 본인은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였다.

1회 학습 토론회 ‘자녀의 특성 및 부모의 특성 이해’에서 어머니A는 아이의 정서지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정서지능 이론 중 ‘아이는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해줬다는 사실만으로도 심리적 안정을 찾고 충동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라는 구절에 격한 분노를 표현하였다. 첫째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아이의 감정을 이해해 주었는데 아이는 심리적 안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더 난폭해졌기 때문이었다. 첫째 아이를 이해해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할수록 아이의 요구는 끝이 없었기에 어느 정도 인정해줘야 적당한 것인지, 아이는 어느 정도까지 받아주어야 만족하고 끝나는 건인지 힘들었던 것이다.

힘든 육아 때문에 오는 우울한 감정이 남편의 적절한 도움만 있어도 위안이 될 텐데, 집안일에서 양육까지 신호 초부터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던 남편은 어머니A를 더 지치고 외롭게 하였다. 어떤 협조의 손길도 주지 않는 남편에 대한 분노는 토론회 모임 내내 전해졌다.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항상 들었어. 그래서 외롭다는 생각이 들어. 육아가 나 혼자만의 짐. 고치려고 그 사람 변화시키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야. 내가 뉘야 되는 데 놓는 것도 힘들지만, 놓고 나서도 난 항상 쓸쓸하잖아. 왜냐하면 나만 참아야 하니깐.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나는 참아야 하니깐 내가 힘든 거지.  
(2차 어머니 토론회 자료, 2013년 7월 17일)

## 2) 분노표출-아이에게 통하지 않는 상호작용 기술

어머니A는 어머니 토론회 모임에 상호작용기술에 대한 가장 큰 의문과 분노를 가졌다. 어머니A를 화나게 했던 것은 효과가 없는 ‘아이의 마음 읽기’였다. 어머니A는 아이



의 의견을 존중하고, 마음을 읽어주려 노력해도 엄마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계속 부정적인 반응만 하는 첫째 아이에게 지쳐만 갔다.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어도 순화되지 않고 자기 요구 본능에 매달리는 아이에게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하는지 회의감을 갖게 되었다. 이론상으로는 다그치지 않고 아이가 마음을 읽어주면 아이의 마음이 안정되고 자기 분노를 조정한다고 하는데, 어머니A의 첫째 아이는 마음의 안정 대신 극심한 분노로 표출하기에 그 다음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과 분노만이 남았다.

내가 마음 읽어주고 충분히 설명도 해주고 했는데도 애가 받아주지 않으니깐 거기에 대해서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음에 액션을 취할지 모르겠는 거죠. 그게 너무 상호작용에서 그게 철수량 가장 힘들었어요.

(5회 어머니 토론회 자료, 2013년 8월 14일)

어머니A의 또 다른 의문은 ‘아이에 대한 칭찬’이었다. 어머니A의 어린 시절에 받지 못했던 칭찬을 아이에게 할 수 있는 한 많이 했는데 아이는 감동도, 반응도 없었다. 어머니A가 진심을 담아 칭찬을 해도 아이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대부분이고, 어떤 때는 너무 좋아 열심히 하였다. ‘아이는 부모가 어떻게 칭찬해야 반응하고, 어떻게 칭찬하니깐 무덤덤한 것일까?’ 이 의문은 어머니A의 분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 의문의 실마리가 아이를 조금이지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나. 어머니 B의 갈등단계

어머니 토론회 모임 첫 회 때, 어머니B는 경직된 모습이였다. 어머니B는 이번 모임을 통해 크게 변화를 갖고 싶어 하는 참여자였다. 연구자로서는 어머니B가 본인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걱정되었던 참여자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모임에서 자신의 감정을 가장 솔직하게 표현한 참여자였다.

어머니B는 첫째 아이와 남편에 대한 미움이 컸다. 특히, 이해할 수 없는 첫째 아이와 남편의 행동이 어머니B의 분노를 가중시켰다.

### 1) 분노표출-미운 첫째 아이와 남편

학습 토론회 1회 ‘모자 관계에서 애착의 중요성’과 2회 ‘자녀의 특성 및 부모의 특성 이해’의 주제에서 어머니B는 ‘애착 형성이 어떻게 해야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과 ‘첫째아이와 남편의 특성이 똑같다’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첫째 아이와 남편에 대

한 원망을 호소하였다.

계획하지 않았던 첫째 아이가 어머니B의 인생 계획을 바꿔 놓았고, 태어나서부터 너무 까다로웠던 첫째 아이는 어머니로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어머니B에게 감정적으로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신혼 초부터 성격이 너무 달라 서로 이해하기 힘들었던 남편은 어머니B의 양육태도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비난을 하였다. 남편은 어머니B가 아이와 남편의 행동과 말에 대해 참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 남편과 늘 뜻이 잘 맞는 첫째 아이가 어머니B는 미웠다. 어머니B는 첫째 아이와 남편의 행동을 “미쳤다.”라며 그들의 행동이 이해하기 어렵고, 어머니B를 힘들게 하는 그들이 너무 미웠다.

그래 싫어 언니. 그래서 내가 싫어. 영희가 미워보여. 아빠의 나쁜 모습을 너무 애가 갖고 있는 거야.

(2회 어머니 토론 자료, 2013년 7월 17일)

## 2) 분노표출-이해하기 힘든 아이

어머니B는 어머니 모임 토론에서 아이의 행동을 이해하기 힘들고, 화가 난다고 하였다. 2회 학습 토론 ‘자녀의 특성 및 부모의 특성 이해’에서 어머니B는 ‘타고난 정서 조절 능력은 아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의 문구가 가장 인상적이었다. 어머니B의 첫째 아이는 둘째 아이와 달리 자기표현을 하지 않았다. 첫째 아이는 화가 나면 의사 표현을 제대로 안하다가 나중에 갑자기 표현하여, 더 화나게 하였다. 둘째 아이는 화가 나면 울면서도 “안아줘, 안아줘” 표현하고 안아주면 진정이 되는 데, 첫째 아이는 울어서 안아주면 오히려 반격을 하였다. 어머니B는 아이의 끝없는 요구도 또한 힘들었다. 아이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면 아이는 한없이 요구하여서, 아이에게 적당한 선이 어디인지, 어디까지 인정해줘야 하는지 어머니B를 지치게 하였다. 어머니B는 첫째 아이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화가 났고, 첫째 아이의 과잉행동-어머니B는 재미가 없는 것을 혼자 킁킁거리고 오버하는 행동-도 이해할 수 없었다. 집중도 잘 못하고 산만한 아이의 행동도 화가 났다.

4회 학습 토론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자기 진단’에서 어머니B는 첫째 아이에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면, 신경질을 내고 투정하는 첫째아이의 행동이 이해도 안갔다. 어머니B는 수없는 이유를 대며 투정을 부리는 첫째 아이가 힘들었고, 구체적인 행동제시를 단계별로 해도 전혀 따르지 않고 문제만 일으키는 첫째 아이가 이해하기 어려웠다.

나는 영희가 그러는 거 보면 내가 미치겠어. 내가 속으로 재는 미쳤나? 이런 생각까지 든 적이 있어.

(2회 어머니 토론 자료, 2013년 7월 17일)

## 다. 어머니 C의 갈등단계

어머니C는 다른 두 참여자보다 토론에서 자기의 의견을 토로하기보다 듣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자기의 문제가 자각되면 행동으로 먼저 시도하려 가장 많이 노력한 어머니였다.

### 1) 분노표출- 힘든 아이

2회 학습토론 ‘자녀의 특성 및 부모의 특성 이해’에서 어머니C는 첫째 아이와 성향이 비슷하고, 둘째 아이는 남편과 비슷하다고 하였다. 어머니C는 까다롭고 고집 있는 둘째아이와의 싸움이 힘들다고 호소하였다. 꼼꼼하고 기억력이 좋은 둘째 아이는 어머니C가 무엇을 시키면 안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났다. 둘째 아이는 남편과 성격이 비슷하여 화가 나면 가만히 나두면 저절로 풀리는데, 성격이 급한 어머니C는 기다리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그리고 공격적이고 짜증나는 말투의 둘째 아이와 끝도 없이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두 아이들이 어머니C를 지치게 하였다.

내말 다 들으면서 안하는 것 좀 봐. 알미운 거야. 안하는 것 같아서 성질나게 하는 거야.

(2회 어머니 토론 자료, 2013년 7월 17일)

## 2. 문제 탐구 단계

반성적 사고를 기반으로한 어머니 토론 모임 속에서 세 참여자들의 공통된 두 번째 반응은 아이의 특성과 본인의 양육태도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양육에 관한 분노표출 강도가 약해졌다는 것이다. 각 참여자가 자녀에게서 문제를 찾던 처음과 달리, 각 참여자는 서로 다른 부분에서 본인의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어머니A는 어머니A의 부모 양육태도와 다른 참여자의 양육태도에서 본인의 양육태도의 문제점을 찾았고, 어머니B는 본인의 어린시절과 부모-자녀 상호작용 교육과정 학습토론에서 그리고 아이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었던 사건을 계기로 본인의 양육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였다. 그리고 어머니C는 어머니B처럼 본인의 어린시절과 부모-자녀

상호작용 교육과정 학습 토론에서 본인의 양육태도 문제점을 찾았다.

### 가. 어머니 A의 문제 탐구 단계

어머니A는 반성적 과제 토론 2회에서 4회까지 이루어졌던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을 알아보고, 자기를 인식하고 내부모를 이해하며, 부모로서 나를 돌아보는 주제 토론활동 동안 본인의 양육태도에 대해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양육스트레스로 격해졌던 분노의 감정도 조금씩 차분해져 갔다.

#### 1) 분노의 객관적 인식-어린 시절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보이는 나의 양육태도

2회 과제 토론 ‘나의 부모님과 이상적인 부모상’ 주제에서 어머니A가 자녀에게 무한한 마음읽기를 했던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어머니A는 자라는 과정에서 어머니A의 마음을 전혀 읽어주지 않고 통제와 규제만 강요 했던 부모님때문에 마음 고생을 많이 하였다. 어머니는 아이에게는 최대한 관대하게, 너그럽게 그리고 최소의 규제와 통제 속에서 키우고 싶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받지 못했던 것을 아이에게 해주고 싶어 아이의 의견에 무조건적인 허용을 하였다. 아이에게 무섭게 혼내지 않을 거라는 양육관을 가지고 있었기에 아이가 원하는 것은 허용되지 말아야 할 것까지 허용하였던 것이다. 어머니A는 본인의 무조건적인 마음 읽기식 양육태도가 어린 시절 부모님의 양육태도에서 비롯된 것을 인식하였다.

어머니A는 또한 4회 과제토론 ‘나는 어떤 부모인가?’에서 부모님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결심을 하고 고쳐진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부모님처럼 행동하는 게 있다는 것도 인식하게 되었다. 그것은 어머니A가 참을 수 있는 한계가 넘으면 심하게 나오는 비난, 막말이었다.

내가 알게 모르게 철수한테 준 상처가 너무 많은 거야. 아버지한테 받았던 상처처럼... 우리 아버지는 안 참고 했지만 난 참아주는 그게 있지만 그 선을 넘으면 나도 아버지처럼 막말을 하는 거야.

(4회 어머니 토론 자료, 2013년 8월 8일)

#### 2) 분노의 객관적 인식-다른 부모에게 있지만 나에게 없는 양육태도

어머니A는 어린 시절에 받지 못했던 마음읽기를 늘 아이에게 해주었지만 아이에게서 오는 반응은 반격뿐이었다. 아이의 마음 읽기는 아이도, 어머니A도 서로 감정을 힘

들게 할 뿐만 아니라 서로 지치게 하였다.

어머니A는 어머니 토론 과정에서 본 어머니C의 단호한 양육태도에서 본인의 부족한 부분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아이의 마음읽기도 중요하지만 단호하게 허용할 부분과 허용할 수 없는 부분을 일관성 있게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참여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조금씩 깨달아 갔다.

대화의 형태로 어떤 주제를 생각하는 것은 다양한 수준으로 숙고하도록 하며 사건이나 행동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거나, 사건이나 관점에 대해 분석적이며 통합적이며 논리적 근거나 비평을 제시하므로써, Hatton과 Smith는 이런 과정의 대화적 반성(이영미, 2006, 재인용)에서 모순된 자신의 의견을 인정하게 된다고 하였다. 어머니 A도 토론 속에서 자연스럽게 본인의 문제를 객관화하고 비교 분석함으로써 스스로 본인의 모순을 차차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어머니A는 어머니C의 단호한 양육태도 속에서 아이에게 적정한 선을 그어주면 서로 편할 것 같다고 하였다. 어린 시절 받지 못했던 마음읽기를 해주고 싶었던 어머니 A는 “한번인데”, “안 되는 거 다음에는 되겠지”하는 마음에 아이에게 허용되는 행동과 허용되지 않는 행동들의 구분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러니깐 원가 사달라고 자기 욕구를 나타낼 때부터 안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건 되는 거고. 우린 그게 없었어.

(5회 어머니 토론 자료, 2013년 8월 14일)

## 나. 어머니 B의 문제 탐구 단계

어린 시절 회상, 본인의 양육태도, 그리고 아이의 입장 이해하기 등에 대한 주제의 토론 과정 속에서 어머니B는 양육으로 인한 분노가 조금씩 누그러져 갔고, 동시에 본인의 양육태도와 아이를 객관적으로 보는 시선이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 1) 분노의 객관적 인식-어린 시절 나와 같은 아이

3회 과제토론 ‘부모가 생각하는 나’ 주제에서 어머니B는 친정아버지가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의 어머니B에게 느꼈던 감정과 지금 어머니B가 생각하는 아이에 대한 감정과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친정아버지는 어린시절 어머니B를 볼 때마다 “늘 제대로 하는 거 없어”라며 불만을 가졌다. 친정아버지가 늘 어머니B 어린시절 이야기 했던 “애교도 없고, 철도 없고, 덜렁대고”, “미련곰탱이, 미련곰탱이 저거 어따 써먹냐?”는 지금 어머니B가 첫째아이에게 하는 이야기와 똑같았다.

어렸을 때 아빠는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제가 영희한테 느낀 감정을 아빠가 느꼈던 거 같아. 애교도 없고 철도 없고 덜렁대고 우리 아빠가 맨날 그랬어. 어우 저거 어따 써먹어. 맨날 제대로 하는 거 없이 어리숙한거야. 우리 아빠가 볼 때는 어리숙한거야.

(3회 어머니 토론 자료, 2013년 7월 24일)

## 2) 분노의 객관적 인식-부모인 나의 문제

어머니B는 본인의 문제를 소소한 것 까지도 분석하려 노력하였다. 어머니B는 아이의 답답한 행동을 고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제시를 많이 하고, 일일이 코치하였다. 그러나 과제토론 3회 ‘부모가 생각하는 나’에서 어머니B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어머니B에게 무조건 못하게 하기보다 경험해서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부모님은 어머니B에게 본인의 선택을 느껴보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셨는데, 지금 어머니B는 아이에게 부모님처럼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우리 엄마랑 우리 아빠는 습관 강요를 안했어. 아빠가 일단 니가 해보고 후회를 해야.... 우리 아빠는 무조건 못하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

(3회 어머니 토론 자료, 2013년 7월 24일)

어머니B는 아이의 습관 길들이기가 무척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정서보다 우선시되었다. 그러나 3회 ‘아이가 달라졌어요’ 동영상 분석 토론에서 동영상 주인공 문제 아이가 엄마의 품이 그리워 안아달라고 하는데 엄마는 버릇이 없어질 수 있다고 안아주지 않았다. 이 장면을 보며 습관과 정서, 무엇이 먼저 와야 하는지 토론하는데, 어머니B는 예전에 아이의 감정을 만져주었을 때 아이가 훨씬 순해졌다고 이야기하였다.

어머니B는 아이의 ‘징징거림’이 가장 힘들었다. 그러나 4회 반성적 과제토론 ‘부모로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주제에서 어머니B는 본인의 지시적인 말투와 짜증 섞어 아이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어머니B가 계획한대로 아이가 움직이지 않았을 때 아이에게 짜증을 많이 내고, 또한 아이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훈육하기보다 심한 비난을 아이에게 쏟아 부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아이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분노보다 어머니B 본인의 화를 아이에게 전달했다고 고백하였다.

어머니B는 구체적인 행동방안을 제시해도 아이가 따르지 않아 화가 났었다. 그러나 9회 학습토론 ‘효과적 의사소통:무승부법’에서 문제해결하려고만 하지 아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보며 어머니B는 본인의 문제는 아이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

하지 못해서 생긴 것이라 인식하였다.

나는 그 성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모든 문제점. 거기서 시작하는 거 같애. 난 아직도 그렇게 징징거리거나 이렇게 하는 게 다가오면 은 난 화가 나.

(9회 어머니 토론 자료, 2013년 9월 10일)

### 3) 분노의 객관적 인식-아이의 마음 이해하기

어머니B의 분노는 아이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어머니B는 어머니 모임 토론 과정에서 아이의 행동을 부모의 시선이 아닌, 아이의 시선으로 아이의 감정부터 이해하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4회 학습토론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진단’에서 어머니B는 아이의 감정을 축소하는 본인의 태도를 깨달았다. 학습 주제 내용에서 ‘아이는 안 괜찮은 데 엄마는 괜찮다고’하는 문구를 보며, 짜증을 많이 내는 첫째 아이에게 “짜증내지 마라, 괜찮다.”고만 아이에게 강요했지, 안 괜찮은 아이의 마음을 읽어보지 못한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였다.

아이는 안 괜찮은 데 엄마는 괜찮다고...영희는 짜증을 많이 내요. 자기가 친구처럼 자기가 해야 하는데 잘 안되면 되게 많이 짜증내요. 내가 짜증내지마라. 어 한번에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하다보면서 느는 거지. 아무리 말을 해 줘도 짜증을 너무 많이 내. 자기는 여기가 안 괜찮은데, 엄마는 계속 괜찮다고... 만족이 안되는거지 그게 만족이 안되는데 그런데 엄마는 괜찮데. 뭐가 괜찮은데...

(4회 어머니 토론 자료, 2013년 8월 8일)

어머니B가 아이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선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일명 ‘화장실 사건’이었다. ‘화장실 사건’은 친구가 시켜서 첫째아이가 학교 화장실 몰래 엿보다가 선생님께 들킨 사건이었다. 아이가 선생님에게 솔직하게 누가 시켰고, 화장실 보는 것 시도하려 했으나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학부모를 부르는 큰 일로 가지 않았을 데, 첫째 아이가 선생님께 아무 이야기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머니B까지 알게 된 사건이었다. 어머니B는 첫째 아이에게 너무 화가 나서, “왜 솔직하게 말하지도 못했냐”고 어머니B가 “선생님께 어떻게 설명해야하냐”며 당황스러워하였다. 8회 과제토론 ‘내 아이와 입장 바꿔 생각하기’ 주제에서 이 문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면서 첫째 아이는 마음이 착해서 친구를 이르지 못한 게 아닐까 이야기를 나누었다. 토론 모임 후 아이에게 선생님에게 말하지 못한 이유를 물어보니 토론모임에서 추측한 내용과 일치하였다. 어머니B는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만

추궁한 것이, ‘선생님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하나’ 고민만 했던 것이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였다. 어머니B는 아이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줬을 지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며 눈물을 글썽거렸다. 첫째 아이는 매일 미워서 갖다 버리라는 동생도 어떤 상황이 생기면 동생 생각부터 하는데, 어머니B는 엄마인데도 그 상황에서 첫째 아이 생각을 안했다는 게 창피하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나는 재 생각은 하나도 안한 거잖아. 선생님한테 어떻게 볼까? 재는 왜 그랬을까? 저 바보 같은, 덩치는 산만한 게 친구가 하겠다고 그냥해? 막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개 마음이 안 읽혀지는 거예요.(눈시울을 붉히며) 착한 애인데. 오히려 애가...  
(9회 어머니 토론 자료, 2013년 9월 10일)

#### 다. 어머니 C의 문제 탐구 단계

어머니C는 어머니 토론 모임과정 속에서 본인의 특성과 유사한 아이들, 본인의 양육태도 문제 인식, 그리고 아이들이 힘들겠다는 인식 과정 속에서 어머니C의 분노가 점차 잠잠해져 갔고, 본인의 양육태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하였다.

##### 1) 분노의 객관적 인식-나랑 똑같은 아이

어머니C는 어린 시절의 참여자의 특성과 첫째 아이의 특성이 유사함을 3회 과제토론 ‘부모가 생각하는 나’에서 발견하였다. 어머니C는 친정어머니가 어린시절 어머니C에게 소리한 번 지르지도 짜증내지도 않았다는 것에 고마웠고, 본인은 아이들에게 친정어머니처럼 하지 못한다는 것에 미안하였다.

어머니C는 둘째 아이가 밋게 말할 때 화가 나고, 둘째 아이와 싸우고 있는 본인을 보니 더 화가 났다. 첫째아이도 키울 때 힘들었지만 또 다른 힘들이라고 호소하였다. 5회 과제 토론에서 ‘어떤 상황이 아이와 상호작용이 힘들었나요?’의 주제로 토론하는 중 어머니C는 둘째 아이의 말투가 어머니C와 똑같다는 걸 인식하며 당혹스러워하였다.

싸가지가 없게 말해요. 그거 볼 때 마다 승질 나. 민영이가 내가 하는 말 그대로 따라하네. “알았다고”(이 악물고) 이래요. 좀 보면서 “좀~ 하지 말라고”(신경질적으로)하면 민영이도 나한테 나중에 그렇게 말하거든. 아 저거. 너무 똑같애. 나랑.  
(5회 어머니 토론 자료, 2013년 8월 14일)

##### 2) 분노의 객관적 인식-부모인 나의 문제

친구들이랑 노는 것은 재미있지만 아이들과 노는 것은 재미없다는 어머니C는 토론



에서 참여자들 중 본인의 문제를 가장 많이 이야기한 어머니였다.

1회 반성적 과제토론 ‘부모모임을 통해 어떤 변화를 기대하나요?’의 주제에서 어머니C는 아이들의 요구를 잘 안 들어주고 어머니 본인의 결정으로 모든 것을 하려는 이유는 아이들이 본인처럼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사람이 될까봐, 습관이 될까봐 걱정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어머니C의 부모님이 어머니C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줬기 때문에 아직도 의지하게 되는 본인의 모습을 아이들이 배우지 않기를 원하였다.

3회 학습토론 ‘자녀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하기’에서 어머니C는 아이와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 버릇이 없어질까 봐 아이의 기분을 충분히 받아주지 않았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아이에게 구체적으로 무슨 행동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기보다 비난하고 무조건적으로 어머니C의 의견만 강조하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면 아닌 거야. 화제를 그런 식으로 감정을 읽어주지 않고 내 맘대로 행동을 바꾸는 거죠. 내감정대로. 애가 만약에 아팠어. 피가 안 났어. 그럼 괜찮아. 끝. 이런 식으로 화제를 바꿔요.

(4회 어머니 토론 자료, 2013년 8월 8일)

5회 반성적 과제토론 ‘어떤 상황이 아이와 상호작용이 힘들었나요?’에서 어머니C는 아이들이 기분 나쁜 말투로 말했을 때 본인은 부드러운 말투로 대응하기보다 더 화난 목소리로 반격하였다. 어머니C는 아이들이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과 아이들과 말이 길어지는 것이 싫어서, 아이들이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였다.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 거 이거 진짜 힘들어. 어제 공부한 거 보면 명령적, 권위적 이런 게 좀 나의 모습이긴 하거든요. 좋지만 나중에 힘들다는 건 알지만 이게 잘 먹히니깐. 하는 거야. 자꾸 나도 안 돼. 췌. 2번에 끝내버려. 그냥 알짭없어. 세 번까지도 안가. 이제 두 번에 끝내.

(5회 어머니 토론 자료, 2013년 8월 14일)

### 3) 분노의 객관적 인식-아이의 입장에 서기

어머니C는 첫째 아이와 성향이 비슷해서, 첫째 아이의 성향에 맞게 융통성 있게 접근하면 되는데, 계획되어진 일정을 꼭 지키도록 하기 때문에 매일 싸움이 났었다. 2회 학습토론 ‘자녀의 특성 및 부모의 특성 이해’에서 어머니C는 첫째 아이의 성향을 이해하며 대응해야 하는데, 본인의 계획만 순종하기를 원하기에 첫째아이에게 미안하였다.

5회 학습과제 ‘효과적인 의사소통 반영적 경청’에서 어머니C는 모든 것을 본인 마음대로 하면서 명령적이고, 비아냥거리는 본인의 말투로 아이들이 상처를 받았을 것이

라 생각하니 미안하였다. 어머니C는 친정엄마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지만, 어머니C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힘들었을 거라 이야기하였다.

나는 내가 애들한테 내맘대로 명령적 틀에 박힌 생각, 비아냥거림을 또 깨닫게 됐다. 어. 내말로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응. 참 미안하다.

(5회 어머니 토론 자료, 2013년 8월 14일)

6회 학습토론 ‘효과적 의사소통 나전달법’ 주제에서 어머니C는 “부모가 아이한테 바라는 것도 많고 아이 말도 안들어 주는 게 아이들이 참 힘들겠다”며 재차 미안함을 표현하였다. 6회 반성적 과제토론 ‘나의 기대치와 자녀의 장.단점’에서 어머니C는 아이들이 먼저 징징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짜증나는 말투와 부정적인 생각으로 아이에게 대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히려 힘들다는 것을 이야기하였다.

엄마가 애를 그렇게 만든거잖아. 처음엔 그런게 괴로웠어요. 우리 첫째애는 멀쩡한데 내가 애한테 바라는 것도 많고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면은 자랄 수 있는데 내가 자꾸 애한테 애 말도 자꾸 안들어주고 애한테 바라는 것도 많고 이래서 중하가 나중에 참 힘들겠다. 그런 반성을 하게되. 이번 모임이 반성하는 모임...

(6회 어머니 토론 자료, 2013년 8월 22일)

8회 반성적 과제토론 ‘내 아이와 입장 바꿔 생각해보기’에서 어머니C는 아이한테 바라는 게 너무 많아 아이도 힘들 거라며 이야기하였다.

저도 성격이 칠칠맞고 꼼꼼하지 못하면서 자꾸 첫째 애한테 바라기만 하는거 같애. 나의 이런 거를 안했으면 좋겠으니깐. 좀 남자니깐 꼼꼼하고 앞으로 나는 솔직히 가정에 있어도 칠칠 맞아도 상관없지만 남자는 직장에서는 꼼꼼해야 되는게 정확하잖아요. 나는 그런 거를 바라는 거 같애. 그래서 첫째 애한테 바라는 게 너무 많아지는 거지. 첫째 애가 힘들지. 히히

(8회 어머니 토론 자료, 2013년 9월 3일)

### 3. 문제해결책 제시 단계

문제 탐구 단계에서 각 참여자가 본인의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하였다면, 문제해결책 제시 단계에서는 각 참여자가 본인의 문제를 정의하였다.

#### 가. 어머니 A의 문제해결책 제시 단계

어머니 토론 모임 초기에 어머니A는 양육에서 오는 분노로 인해 본인의 양육태도

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받아들이는 준비시간이 필요했다. 부모 분노의 원인을 조금씩 이해하면서 감정적으로 차분해져 갔고, 본인의 양육태도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세로 보려 노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부딪히는 또 다른 한계는 어머니A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양육 문제를 인식할 수 있다는 한계였다.

### 1) 양육태도의 재정립-양육태도의 재점검

반성적 사고의 수준 단계에서 양육에 관한 모든 문제를 어머니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선호도 차원에서 해석하는 개인적 수준 1단계에 있는 어머니A에게 본인의 모자 상호작용관계를 객관적 입장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본인의 모자 만들기 활동 동영상을 보는 시간을 가졌다.

모자 만들기 활동 동영상 속에서 어머니A는 아이의 주도가 아닌 어머니A 주도의 만들기가 이루어지고, 만들기에 몰입하지 못하는 아이를 관찰하였다. 그리고 어머니A가 아이에게 만들기 작품을 칭찬해도 기뻐하지 않는 아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어머니A는 어린 시절 부모의 틀이 싫었다고 하지만, 동영상에서 본 어머니A의 양육태도는 어머니A만의 틀을 아이에게 제시하였다. 어머니A는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전체적인 틀은 아이 중심이 아니라 부모 중심이었다. 인간은 자율성과 자기의지, 자기가치를 존중받지 못할 때 자아실현이 이루어 지지 않으며 불안해 진다(Charles S. Carer, Michael F. Scheier, 2013).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어도, 칭찬을 많이 해도 아이는 과격한 행동반응만 나왔다고 혼란했던 어머니A가 알아야 하는 또 다른 불편한 진실이 숨어있었다.

철수같은 케이스는 차라리 엄마의 개입이 없이 내가 주도해서 아 내가 이거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다. 지금보다는 훨씬 몰입해서 재미있게 만들 수 있었을 거 같애. 철수야. 이거 만들까가 아니라 철수야 너가 만들고 싶은거 만들자 이렇게 했으면 철수가 집중했을 거 같애. 웬지

(5-1회 어머니 토론 자료, 2013년 8월 20일)

어머니A가 가졌던 한 의문, 아이에게 칭찬이 큰 효과가 없다는 이유를 찾을 수 있었다. 어머니A는 예전에 칭찬이 효과가 있었던 아래의 사건을 떠올리며 본인의 양육태도 문제를 재점검하였다.

어머니A가 예전에 바닷가에 놀러갔을 때 첫째 아이의 그림 숙제를 빨리 끝나게 도

와주려고 어머니A가 아이 그림 활동에 개입을 하였다. 아이의 마지못해 그리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난 어머니A는 샤워하러 간다고 나왔다. 어머니A는 사실 그림 그리는 동안 아이의 화를 수용하기 힘들어서 피한 것이었는데, 자리를 피한 것이 오히려 아이에게 더 멋진 그림을 완성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던 것이다. 아이는 스스로한 활동도 만족하고, 어머니A의 칭찬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였다. 어머니A는 아이와의 그림 그리기 활동 사건 속에서 어떤 상황일 때 아이에게 칭찬이 효과적인 지 어렵듯이 이해하게 되었다. 아이의 능력을 존중하기보다 방해하는 엄마의 개입이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니깐 엄마가 샤워하는 동안 (그린) 그림은 엄마가 주문한 내용이 전혀 없었어. 내가 주문한 불가사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 자기가 그리고 싶은 갈매기랑, 돌 그랬는데. 그러니깐 엄마 개입이 싫었던거야.

(5-1회 어머니 토론 자료, 2013년 8월 20일)

## 2) 양육태도의 재정립-부모 스스로 다시 정의하는 양육태도

모자 상호작용 교육과정 학습 토론에서 어머니A는 알고 있었던 양육태도 지식과 상호작용 학습 주제 내용을 비교 분석하며 양육태도에 대하여 재정의 하는 작업을 하였다.

양육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먼저 자신을 다스리기, 감정을 읽어주고, 대안을 제시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 스스로 문제해결능력을 키워주기, 허용할 행동과 허용할 수 없는 행동 기준 만들기 등 참여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어머니A가 필요한 양육태도에 대하여 재정의하는 시간이었다.

무조건적인 반영은 아닌거 같애. 철이를 봐도... 왜냐하면 철이 아빠는 많이 반영되면서 살아왔던 아빠 세대, 아빠가 그러니깐 자기가 컸던 것처럼 할려고 해. 그리고 나는 허용하지 않았던 (나의)부모 양육태도 때문에... 나는 허용해주고 싶었던거야. 두 부부가 허용에 대해선 너무 관대했던거지. 규제보다는... 그리고 항상 시댁 가서도 애 기죽는다. 잡지마라. 그거였어. 우리 신랑도 남자는 기죽으면 끝이야. 다 받아주고. 사달라는 것도 기를 죽일까봐. 그래서 사주는거야. 그랬더니 결과가 내가 엄마가 감당하기 힘든거죠.

(6회 어머니 토론 자료, 2013년 8월 22일)

## 나. 어머니 B의 문제해결책 제시 단계

### 1) 양육태도의 재정립-양육태도 재점검

어머니B 본인의 양육태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본인의 모자 만들기 활동 동영상 보면서 어머니B는 첫째 아이의 의견에 경청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머니B는 첫째 아이를 외면한 게 아니라 언제나 매달리고 우는 둘째를 돌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둘째 아이가 너무 어려서 둘째 아이 위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첫째 아이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모자 만들기 활동 동영상 속에서 어머니B는 첫째 아이에게 관심도, 반응도 주지 않는 시큰둥한 본인의 모습도 발견하였다. 또한 첫째 아이가 불안해 보이는 모습과 만들기 에 몰입하지 못하고 엄마의 동정만 살피는 모습도 발견하였다. 어머니B가 이야기를 들을 상황이 아닐 때, 첫째 아이가 계속 이야기 하는 경우가 있어서 늘 나중에 이야기 하자고만 하였지, 본인이 첫째아이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였다.

나는 영자가 너무 어려서 영자 위주로 얘기하거든요. 집에서도 그래요. 근데 영자가 너무 어려서 애 위주로 들어주는데 영희 입장에서 스트레스 받겠구나 싶은 거예요.

(5-1회 어머니 토론 자료, 2013년 8월 20일)

### 2) 양육태도의 재정립-필요한 양육태도 정의하기

어머니B는 첫째 아이의 행동이 이해가 안가고, 문제 행동을 많이 일으키는 첫째 아이가 힘들었지만, 6회 반성적 과제토론 ‘나의 기대치와 자녀의 장.단점’ 주제에서 어머니B는 아이에게 어떤 행동을 문제로 봤을 때 그 행동이 문제로 느끼게 되는 것처럼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시선이 중요함을 이야기하였다.

영희 놀이치료 할 때도 나는 애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놀이치료를 했어요. 애 이거를 문제로 봤을 때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문제가 아니었구나. 애를 이해하자. 애를 이해하면 된다. 시각이 좀 바뀌니깐 내가 편하더라구. 내가 맘이 편하니깐 바뀐 거야. 그게 문제로 안 보여. 그 다음엔.

(6회 어머니 토론 자료, 2013년 8월 22일)

6회 학습토론 ‘효과적 의사소통:제한설정’ 주제에서 어머니B는 아이가 문제를 일으킬 때 마다 매우 구체적인 행동제시를 가르쳤으나 여전히 똑같은 문제행동을 반복하여 화가 났다. 그러나 어머니B는 문제의 행동만 바라보았지 아이의 마음을 공감하고 쓰다듬기를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였다. 어머니B는 ‘화장실사건’ 본인의 경험을 통해

아이의 마음 공감하기와 쓰다듬기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계획만 구체적인 게 잘되는데, 난 공감하고 쓰다듬기가 너무 없는 거 같애.  
(6회 어머니 토론회 자료, 2013년 8월 22일)

10회 반성적 과제토론회 ‘모임을 통해 느낀 점’에서 어머니B는 이 모임 전부터 아이의 성향과 기질을 알고 있었지만 인정만 할뿐 생각이 전부였고, 화가 나는 상황에서는 부모 감정만 우선시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부모 감정보다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면, 벌어진 상황을 보다 아이가 ‘왜 그랬을까?’의 초점으로 조금 전환이 되면 문제보다 아이 심정이 더 많이 이해가 가고 아이에게 맞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였다. 부모 기준에서 제안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 기준에서 설정하는 것, 이것은 아이와 좀 길게 싸우는 것도 짧게 싸우게 하고, 크게 싸울 것도 작게 싸우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어머니B는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부모가 느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이한테 미안한 점을 발견한다는 것은 부모 본인의 단점을 인식한다는 것이고, 그걸 느껴야 부모가 본인의 양육태도를 수정하려 노력할 것이라 이야기하였다.

내가 느껴야 되는 것 같애. 난 영희한테 좀 미안한 그 포인트를 잡았잖아요. 그러니깐 조금 내가 아 난 이런 부분이 약하구나. 취약하구나. 이걸 느끼니깐 내가 자꾸 그걸 먼저 보려고 노력했던거 같애. 내가 느끼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거 같애. 느끼지 않으면 공감이 안 오잖아. 내가. 내가 화가 나 있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겠어.  
(10회 어머니 토론회 자료, 2013년 9월 24일)

#### 다. 어머니 C의 문제해결책 제시 단계

##### 1) 필요한 양육태도 정의하기

6회 반성적 과제 토론회 ‘나의 기대치와 자녀의 장. 단점’에서 어머니C는 아이들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서 많은 것을 요구하고 지적을 하게 되므로, 어머니C 스스로가 아이에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도록 노력해서 아이들이 부정적인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9회 학습토론회 ‘효과적인 의사소통-무승부법’에서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면 아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줘야겠다고 강조하였다.

10회 반성적 과제토론회 ‘나자신을 돌아보다’에서 어머니C는 어머니 토론회 모임에서 아이 특성보다 본인 스스로를 돌아 볼 수 있었던 것이 가장 중요하였고, ‘부모는 부모의 문제를 느껴야 한다고, 모든지 느껴야 되는 것 같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기 성격을 파악하고 바뀌어야 하는 게 무엇인지 자기 정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는 솔직히 애 성향보다는 내 자신을 보는 게 포인트였던 거 같아요. 솔직히 내 성격에 맞춰서 아이들은 자라게 되어 있거든. 그니깐 아이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보면 진짜 엄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엄마가 좀 차분하게 엄마의 자기 성격을 파악해야 되고, 내가 정말 아이한테 바뀌어야 되는 게 무엇인지 자기를 정리해야 될 거 같애.

(10회 어머니 토론 자료, 2013년 9월 24일)

#### 4. 문제 해결책 시도 단계

각 참여자들이 발견한 서로 다른 양육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 참여자들은 각자에게 필요한 새로운 양육태도를 시도하려 노력하였다.

##### 가. 어머니 A의 문제 해결책 시도단계

###### 1) 새로운 양육태도 시도-양육태도 균형 찾아가기

어머니 토론 모임에서 어머니A는 어머니C의 단호한 양육태도를 통해, 감정을 너무 읽으면 아이도 부모도 지친다는 인식과 마음읽기도 중요하지만 허용할 행동과 허용할 수 없는 행동의 기준을 단호하게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머니A는 생활 속에서 조금씩 본인의 부족한 부분을 인식하며 아이와 상호작용하려 노력하였다. 다음은 어머니A가 본인에게 필요한 양육태도를 의식적으로 생각하며 시도한 사례들이다.

첫째 사례는 바닷가에서 잡아온 불가사리 버린 사건이었다. 첫째 아이가 바닷가에 놀러가 잡은 불가사리를 말려 친구들에게 자랑하려고 하였으나, 어머니A가 불가사리를 손질하고 말리는 과정에서 너무 지독한 냄새가 나서 아이의 동의 없이 버렸다. 이 사실을 안 첫째 아이는 예상한 것처럼 격한 반응을 보였다. 어머니A는 상황설명을 충분히 한 후 아이의 반격에 대해 “받아줄 수 없을 것 같애. (방에 들어가서) 정리하고 나와.”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였고, 아이는 평소보다 마음이 금방 진정되었다.

그게 빨라졌어요. 그러니깐 나 무조건 허용해주고 무조건 경청해준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시간이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나중에는 나도 화가 나고 애도 화가 진정이 안 되고 막 이랬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해주다가 그니깐 철수도 아는 것 같아요. 아 어느

정도까지는 엄마가 참아주고 내 마음을 읽어주고 한 것을 화날 때는 모르는데 좀 진정이 되면 알아서 그걸 사과를 하더라구요.

(6회 어머니 토론 자료, 2013년 8월 22일)

어머니A는 마음 읽기에만 치중했던 것에서 벗어나 허용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한 단호한 태도도 혼련하며 양육태도의 균형을 갖게 되자, 아이에게 했던 비난의 소리가 줄어들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예전에는 마음읽기에만 몰입해 아이도, 부모도 지치고 실랑이도 길어졌었다. 이렇게 부모가 힘들어지니깐 비난을 하게 되었지만, 구체적인 설명과 단호한 태도로 대하니, 아이가 받아들이는 시간도 빨라지고 부모 비난의 소리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엄마가 단호해지니깐 아이가 빨리 빨리 행동으로 옮기고 비난의 소리가 없어졌어요. 줄어들었어요. 그니깐 관계가 훨씬 좋아진 관계로 지금은 아주 바람직한 관계로 가고 있는 거 같아요.

(9회 어머니 토론 자료, 2013년 9월 10일)

어머니A는 부모와 토론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나무에 집중하고 치중했었던 안목이 여러 나무가 모여 하나의 숲을 이룬 전체적인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어머니A는 부모의 지침 없이 아이의 상황에 맞춰 우왕좌왕하며, 감정적으로만 호소했었던 본인의 문제를 떠오르며 균형적인 양육태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이렇게 보니깐 서서히 조금씩 윤곽을 잡아가는 거 같아. 여기서도 조금 찾아가는 거 같아. 초장과 단호함. 저는 항상 마음을 읽어주는데 왜 안 될까. 거기에 대한 의문이 많았거든요. 많이 읽어주고 많이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준다고 하는데 왜 안됐을까? 너무 많이 읽어준거지. 그러니깐 아이도 질질 끌려 간 거고 저도 끌려 간 거고. 적절한 선을 두지 못했던 게 제일 큰 거였고 그거를 발견한 게 제일 큰 거였고

(10회 어머니 토론 자료, 2013년 9월 24일)

## 나. 어머니 B의 문제 해결책 시도 단계

### 1) 새로운 양육태도 시도

어머니B는 토론 모임에서 이야기한 양육기술들을 어머니B의 상황에 맞춰 생활 속에 적용하려 노력하였다.

어머니B는 아이와 긍정적인 대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평상시 아이 때문에 화가 나서 아이에게 긍정적인 말이 안 나온다는 것을 참작하여 서로 마음이 편해지는 자기 전 시간에 매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긍정적인 말을 하자. 이게 평상시에는 안되요. 평상시에는 막 화나 있는 경우가 많으니깐 내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깐 맨날 맨날. 해주고 있거든요. 영희한테 자기 전에. 잘 때는 나두 마음이 편안해져있고 영희도 좀 머릿속이 비어있잖아. 누워있으면 잘자라고 인사하기 전에 요새 맨날 얘기해요. ‘영희는 잘할 거야. 모든지 다 잘할 거야’ 계속 이렇게 얘기해주거든요. 얼굴을 만지면서 그럼 듣고 있어요.

(10회 어머니 토론 자료, 2013년 9월 24일)

‘화장실 사건’이후 어머니B는 아이의 입장을 고려하는 태도와 아이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려 노력하였다.

(학원차가 오는 시간 쯤 안한 학원 과제를 발견하였을 때) ‘지금할까? 아니 아니야. 오늘 하지마’ 그랬더니 그냥 가더라고요. (평상시)땀데 같았으면 막 게임기 달라고 해서 게임하면서 갔을텐데. 땀데 같았으면. ‘야. 차에서라도 (숙제)해’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났어. 하하. 그냥 났어.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고 냅두고 났더니 서로 잔소리 안하게 되고 애도 기분 좋게 그냥 학원 가고 예전에는 그리고 또 자기 전에 책을 읽는게 습관이에요. 저희는. 책을 읽고 잤었는데 지금 책 안 읽고 얘기하다 자요. 그러니깐 일주일에 책 매일 읽었는데 지금 2번 읽으면 3번 정도 얘기하고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나는 내가 어머니C의 둘째 아이랑 비슷하잖아. 내가 깨우쳐야 하는거야. 내가 이걸 하면서 영희의 마음을 못 알아준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내가 느끼니깐 고쳐지더라고(울먹이며 이야기)

(8회 어머니 토론 자료, 2013년 9월 3일)

10회 과제 토론 ‘구체적으로 변화된 부분은 무엇입니까?’에서 어머니B는 ‘옛날에는 그냥 화나면 그냥 말 안하고 가만있다가 어느 순간 확 터트렸는데, 화나는 부분을 조금씩 적절하게 표현하니 남편과 아이와의 관계도 많이 호전되고 짜증도 줄어들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아이와 힘겨루기를 할 때 어머니B가 먼저 저주니깐 화가 덜 나기도 하며, 잘못된 문제 상황이 있었을 때 아이를 다그치지 않고 “영희야, 엄마가 그래서 서운했어?”라고 물으면 첫째 아이도 눈물을 흘리면서 반성하는 등 잔잔하고 감동적인 변화들을 이야기하였다.

내가 한번 승부 간에 한번 싹 내가 먼저 저주면 나도 화가 덜 나는 거 같애.

(10회 어머니 토론 자료, 2013년 9월 24일)

## 다. 어머니 C의 문제 해결책 시도 단계

### 1) 새로운 양육태도 시도

어머니C는 ‘빨리’라는 단어를 줄이고 화도 안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며 지시적인 말투보다 질문형으로 아이가 스스로 움직이는 방법을 사용하려 하였다.

아침 상황이었다. 알람이 울려도 민영이 들을 준비를 안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 ‘빨리라는 단어를 없애고 화도 안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민영아 알람이 울렸는데 준비 안 해? 선생님이 오시면 그 차림 내복으로 갈거야? 씻지도 않고 그럼 어떨거 같아?’ 하고 물었다. 민영이한테 ‘어린이집가서 씻으면 되잖아. 그렇게 해’, 민영이가 ‘그렇게 하면 안되잖아’ ‘그럼 어떻게해?’ ‘빨리 씻어야 돼’ ‘그럼 어서 준비해’ 화장실에서 양치질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민영아 선생님 오셨다는데 뭐라고 말할까? 그냥 가시라고 할까?’, ‘아니 빨리 씻을테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말해’, ‘그럼 다른 친구들이 엄청 기다릴텐데’, ‘알았어 빨리 나갈게’

(7회 어머니 토론회 자료-참여자 저널 공유시간, 2013년 8월 31일)

어머니C는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려 노력하였다.

옷도 빨리 입고 신발도 빨리 신고 머리를 엘리베이터에서 묶어 주려고 했는데 ‘엄마 오늘은 풀고 가고 싶어’ 예전 같으면 ‘더워서 안돼. 묶어야 돼. 땀피나서 나중에 아파’하고 잔소리도 하고 신경질도 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럼 민영아 머리끈 넣어줄테니깐 묶고 싶으면 선생님한테 부탁해’라고 말했다 너무 좋다. 민영이랑 싸우지도 않고 실랑이도 안 걸리고 너무 좋았다. 민영인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니깐 앞으로 나도 귀찮아 하지말고 노력해보아야지. 황팅,

(7회 어머니 토론회 자료-참여자 저널 공유시간, 2013년 8월 31일)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한 다른 사례는 ‘중량천 산책’일이었다. 어머니C는 아이들과 함께 중량천 A코스 산책을 한 후 떡볶이 먹기로 계획하였다. 그런데 첫째 아이가 어머니C의 계획과 다른 길을 추천하였고, 어머니C는 “너가 한번 엄마를 데려가줘봐.”라고 아이의 의견을 들어주었다. 그 결과 산책활동 동안 아이들이 더 재미있게 놀고 더 즐거워하였다. 어머니C가 계획한 코스는 1시간 코스였고, 평상시라면 걷다가 그냥 오는 길이었었는데, 아이들이 선택한 길에서는 2시간을 즐겁게 놀고 저녁밥도 평상시 보다 더 많이 맛있게 먹었다. 어머니C가 의도했던 대로 했으면 떡볶이 먹으로 길 건넌을 때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했을 것이고, 밥 잘 안 먹는다고 또 잔소리를 했었을 텐데, 아이들의 의견을 따르니 아이들 스스로 책임을 지려는 모습도 보이며 모두가 즐거웠다고 하였다.

어머니C는 잔소리를 줄이려는 전략으로 말을 최대한 안하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잔소리를 계속 하다보면 감정만 점점 상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행동을 제시한 후 아이의 얼굴을 보지 않고 아이가 할 때까지 기다리는 연습을 하였다. 이런 훈련을 한 후 잔소리가 점차 줄어들어 갔다. 어머니C가 말을 줄이고 지켜보게 되니깐 아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숙제해라. 숙제해라. 너 빨리 해야지 뭐해야지. 뭐해야지”의 잔소리가 아니라 간단 명료하게 얼굴을 보며 “숙제해~.” 이야기 하고, 아이가 숙제를 안해도 나뒀다가 정해진 시간이 되었을 때 시간을 물어보면 아이가 급해서 스스로 하게 되었다.

어머니C는 많은 인내를 하며 새로운 양육태도를 시도하였다. 어머니C는 아이가 선택한 옷도 계절에 안 맞아도 그래 한번 입고 경험해 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아이의 의견을 따르려 노력하였다. 어머니C는 항상 “하지마. 야 됐어. 하지마 하지말라 했지”라고 채근하기만 했던 것을 아이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니, 어머니C도 여유가 생기고 조금했던 마음이 조금은 여유로워졌다.

## 5. 문제 해결책 평가 단계

세 참여자들은 각자에게 필요한 새로운 양육태도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지만, 각 참여자들 모두 새로운 양육태도 실행의 어려움과 한계를 느꼈다. 그렇지만 지속적인 반복적 사고는 어려움과 한계도 해결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할 것이다.

### 가. 어머니 A의 문제 해결책 평가 단계

#### 1) 새로운 양육태도 시행의 어려움

단호하지 못했던 어머니A는 새로운 양육태도를 시행하게 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었다. 어머니A가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규제를 한 것이 아니었기에 어머니A의 규제가 익숙하지 않은 아이는 어머니A가 목소리를 크게 하고 무서운 모습으로 이야기해야 아이가 어머니의 규제를 따르게 되었다. 여기에서 어머니A는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또한 평온하기도 하였다.

멘붕이 오는 거야. 나 이거 뭐지? 하면서 나 퇴보하고 있는 거 같고.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평온한 거야. 더 걸이가 더 쉽게 이게 채찍과 당근을 이렇게 써야 적절하게 써야 되었던건데.

(7회 어머니 토론 자료, 2013년 8월 31일)

#### 2) 부모의 한계 직면

어머니 토론 모임 8회 때 어머니A에게 ‘개소리’사건이 발생하였다. ‘개소리’ 사건의 전말은 이러하였다. 첫째 아이가 원하는 것을 어머니A가 들어주지 않자, 아이가 “개소리하고 있네.”라고 어머니A에게 반격을 하였다. 어머니A는 아이가 잘못된 것을 가르쳐야한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아무것도 대응하지 못했다. 어머니A는 첫째 아이의 버럭 화내는 모습이 화를 잘 내셨던 무서우신 아버지와 연결이 되어서, 난폭해진 아이를 보면 어머니는 무기력해져서 그 상황을 피하게 되었다. 연구자는 8회 모임 후 개별적

으로 어머니A와 티타임을 가지며, 어머니A의 어려움을 들었다. 어머니A는 본인의 나약함을 호소하며, 필벽 여사의 엄마처럼 강인함을 갖고 싶다고 이야기하였다. ‘개소리’ 사건 이후로 어머니A는 아이를 위하여 부모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결심하게 되었다.

양육태도의 균형을 찾으려 노력하는 어머니A는 지속적인 도전에 놓여 있다. 부모의 무의식중에 나오는 비난 줄이기, 힘든 일관성, 부모가 지칠 때까지 하는 아이의 반복적인 요구대처, 부모의 폭발하는 감정 조절, 올바른 제한선 두기, 치우치지 않는 균형적인 양육태도, 아이에게 맞는 효과적인 제안 찾기, 징징 거릴 때 대처하는 효과적인 방법 등 끝도 없는 어려움과 의문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 나. 어머니 B의 문제 해결책 평가 단계

### 1) 새로운 양육태도 시행의 어려움

어머니B는 지난번 모자 만들기 활동 동영상을 보고 난 후 첫째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과 반성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많이 안아주고 관심을 가지려 노력하였으나, 아이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말투와 짜증으로 어머니B를 힘들게 하였다.

지난번 점토놀이 촬영한 비디오를 보면서 많은 걸 느끼고 반성하게 됐다. 솔직히 속상하고 미안한 마음이 공존한다. 어제도 이상하게 영희가 짜증을 많이 냈다. 요새 부쩍 짜증도 많아지고 불만도 많아졌다. 사춘기인가. 생각도 하고 더워서 그런가 생각도 하지만 그렇다고 매사가 불만이고 말투 자체에 짜증이 배어 있다. 걱정된다. 어제도 저녁에 키즈카페에 갔다왔다. 영희만 짜증내고 불만이고 까탈스럽게 굴었다. 영희는 남의 탓을 하며 불만을 표했지만 내가 볼 때에는 별 일도 아니었고 까다롭게 구는 영희가 문제로 느껴진다. 솔직히 감정을 읽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너무 까탈스러우니까. 그냥 건성으로 들어주고 건성으로 알려주고 화도 내보고 자기 전에는 지도 미안했는지 약속을 못 지켰다고 미안하다고 한다. 나도 마음을 추스르고 반성하고 영희를 많이 안아주고 관심을 갖아줘야지 생각을 했다. 오늘 아침에 자고 있는 영희에게 얼굴도 쓰다듬고 힘들지 피곤해서 못 일어나는구나. 평소에 안하던 행동도 하고 잠 깰 때까지 쇼파에 같이 앉아 대화도 해 보고 나는 노력했다. 하지만 내 욕심인가 내가 너무 급한건가. 영희는 평소보다 더 투덜대고 더 짜증낸다.

(6회 어머니 토론 자료-참여자 저널 공유 시간, 2013년 8월 22일)

어머니B는 처음의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아 당황스러웠지만, 아이와 남편에게 어머니B의 의도를 긍정적으로 표현하려 노력하였다. 어머니B는 아이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좀 더 편안해졌다. 그러나 아이의 징징거리는 소리는 여전히 힘들었다. 그리고 아이와의 관계에 있어서 ‘죽고 사는 일이 아니면 포기하고 넘어가라’

법칙이 둘째 아이에게는 적용이 되는 데 첫째 아이에게는 안 된다며 힘들어하였다.

그게 되는 거야. 죽고 사는 일이 아니면은 포기하고 넘어가라. 이게 첫째한테는 안돼.  
9회 모임 토론 자료, 2013년 9월 10일)

#### 다. 어머니 C의 문제 해결책 평가 단계

어머니C는 아이들에게 무조건 짜증냈던 예전보다는 나아졌지만 매우 이성적인 둘째아이와의 상호작용은 여전히 어려웠다. 주먹구구식으로도 통했던 첫째아이와의 상호작용이 둘째에게는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논리적인 둘째 아이는 어머니C 하는 말이 타당하지 않으면 절대 듣지 않기 때문에 첫째 아이와 또 다른 상호작용방법이 너무 힘들었다.

년 내 애야. 딸이고 아들이고 없어. 이렇게 되버리니깐. 감정적으로는 못 읽어주고 이성적이지도 못하고 너무 단번에 끝내버려요. 난 그게 미안해요. 민영이한테! 너무 내 주관적으로 단번에 끝내버리니깐. 민준이는 먹혔는데...  
(10회 어머니 토론 자료, 2013년 9월 24일)

어머니C는 잔소리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였지만 아이들만 보면 무의식중에 부정적인 말투의 잔소리가 나왔다. “어 빨리 씻고 나오라는데 왜 자꾸 물장난해. 물 아까워.”, “야 물이 돈이야. 너는 돈을 안 버니깐. 몰라서 그렇지. 물세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 줄 알아? 이 물세만 아껴도 너 딱지 하나 사겠다.” 이런 형식의 말이 무의식적으로 나왔다. 예전보다는 줄어들었지만 무의식중에 나오는 잔소리를 참으로 조절하기 힘들었다.

어머니C의 친정엄마는 아직도 어머니C의 감정을 받아주시는데, 정작 어머니C는 아이들의 감정을 안 받아주게 된다고 고민하였다. 둘째 아이의 일진 스타일 같은 말투나 행동이 어머니C와 너무 안 맞아 걱정이었다.

어머니C는 둘째 아이와 서로의 만족도에 맞추기 힘들었다. 둘째아이는 어떤 활동을 해도 완벽하게 하기를 원하였는데, 어머니C는 대충하고 넘어가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나는 부족한 거야. 내가 부족해. 그런 게. 그래서 내가 애한테 안 맞아서 미안해. 민영이가 더 잘할 수도 있고 더 완벽하게 할 수 있으면 내가 받쳐주고 유도해주면 잘할 텐데. 내가 유도를 그런거에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해주니깐 미안한 거 같애.  
(10회 어머니 토론 자료, 2013년 9월 24일)

반성적 사고를 기반으로한 어머니 토론 모임 속에서 세 참여자들이 보인 양육에 관

한 서로의 분노 원인도, 각자의 양육태도도, 서로 필요한 상호작용기술도 달랐지만, 세 참여자들이 본인의 양육스트레스 원인을 파악하고, 본인의 양육태도 문제를 인식, 정의하면서 적극적으로 변화하려 노력하는 과정의 흐름에서 유사한 양육태도 변화 패턴을 관찰할 수 있었다.

## IV. 논의 및 결론

### 1.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반성적 사고를 기반으로한 어머니 토론 모임 속에서 부모들이 어떻게 양육태도의 문제를 인식, 적용, 해결해 가는지에 대한 변화 과정을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를 위해 양육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2013년 7월9일부터 2013년 9월 24일까지 모자 상호작용 주제 중심의 반성적 어머니 토론 모임을 총11회 진행하였다. 어머니 토론 모임에서 수집된 자료인 참여자 저널, 토론 전사 자료 그리고 연구자 저널로 자료분석하여 어머니들의 양육태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탐색하였으며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반성적 사고를 기반으로한 어머니 토론 모임 속에서 어머니들이 양육스트레스의 문제 원인을 정의할 수 있었다.

모자상호작용 주제인 학습과 반성적 과제 중심의 토론과정 속에서 어머니들은 양육시 힘들었던 부분을 먼저 이야기 하게 되었다. 세 어머니들의 양육스트레스에서 오는 분노의 공통점은 이해할 수 없는 아이의 특성이었다. 그리고 분노를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어머니들의 양육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한 것은 아이의 특성과 본인 양육태도 문제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시점이었다. Abidin(1990)은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특성과 자녀의 특성에 따라 양육스트레스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즉, 부모가 자녀의 행동 특성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부모가 부모의 특성을 어느 정도 지각하느냐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의 정도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이다. 어머니들은 토론모임에서 본인의 사건을 보다 분석적인 각도에서 그리고 타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 속에서 자신의 의견에 대한 모순을 인정하였다. 반성과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소집단 구성 및 집단 토론이 학습자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관점을 객관화하고 다른 학습자

의 관점과 자신의 관점을 비교해보는 기회를 제공(노진형, 정계숙, 2006)한다는 것과 일치한다. 반성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 어머니 토론 모임은 어머니들의 양육스트레스의 원인을 정의내려 양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 정보화시대에서 살고 있는 부모들은 수많은 양육정보를 접할 기회를 갖게 되지만, 양육스트레스로 힘든 부모들에게 어떤 좋은 양육정보도 이론적으로 다가올 뿐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 반성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 어머니 토론 모임은 양육스트레스로 지쳐있는 부모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주는 부모교육 형태라 할 수 있다.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들의 저변을 살펴보면 부모들의 양육태도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건강한 가족, 건강한 청소년,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는 힘든 양육을 감내하시려는 부모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건강한 양육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부모교육 형태가 지원되어야 한다.

둘째, 반성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 어머니 토론 모임속에서 어머니들 본인의 양육태도 문제를 인식, 새로운 양육태도 실천 등 각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를 하였다.

모자상호작용 주제인 학습과 반성적 과제 중심의 토론과정 속에서 어머니들이 관심을 보인 상호작용기술이 다르고, 각자 부족한 상호작용기술이 달랐다. 어머니들이 알고 있었던 모자상호작용과 새롭게 알게 된 정보들을 연구자와 다른 어머니들의 의견과 정보를 비교 분석하면서 본인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반성은 자신의 학습이 다른 사람들의 학습과 비교되거나 대조될 때 효과적으로 일어나며 (Collins, 1991; Dewey, 1933; Schon, 1983; 노진형, 정계숙, 2006, 재인용), 사고를 변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역할은 전문가나 동료들과 관점과 해석을 공유하고, 적절한 피드백이나 상호작용(윤혜경, 2013)이라고 한다. 반성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 어머니 토론 모임은 어머니들에게 반성과 사고를 변화시키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또한 질문과 비판적 읽기 자료, 그리고 비판적 사고와 관련된 연속적인 어머니 토론의 과정에서 반성적 사고를 촉진시킴으로써 어머니 본인이 각자 문제 해결책을 스스로 모색하고 실천하는 기회를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었다.

부모들이 양육과 관련된 다양한 부모교육이나 세미나를 다녀와도 양육태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양육에서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모교육은 양육에 관한 좋은 정보도 중요하지만, 부모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부모가 건강한 양육태도로 변화하는데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부모가 본인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 나

갈 수 있는 형태의 부모교육 형태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어머니들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태도에 대한 변화 과정을 반성적 사고 과정의 5단계를 기준으로 설명하였다. 반성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 부모교육의 선행연구는 프로그램 진행에 따른 부모들의 반응으로 설명하였다면, 본 연구는 개별적인 어머니의 양육태도 변화에 초점을 두어, 의미 있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변화를 위하여 부모교육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려 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반성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 어머니 토론 모임 속에서 어머니들이 양육스트레스의 원인을 정의할 수 있으므로, 양육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부모교육 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

둘째, 반성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 어머니 토론 모임 속에서 어머니들 본인의 양육태도 문제를 인식, 문제해결책 모색 등의 과정을 통해 보다 긍정적인 모자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이는 반성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 어머니 토론 모임이 부모들이 어떤 상황이든 남의 탓이 아닌 내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변화의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부모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다.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토론 모임 시간이 너무 부족하였다. 연구모임을 총 11회, 매회 3시간 이상의 토론을 진행하였으나 계획된 모든 프로그램을 심도 있게 다루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부모 모임의 횟수를 더 늘려 프로그램의 내용이 좀 더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어머니들 본인의 양육태도 문제를 객관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해 프로그램 계획에 없었던 부모-자녀 만들기 동영상 분석활동을 5-1회기에 한 차례만 분석하였지만, 어머니가 본인의 양육태도 문제를 스스로 충분히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3번 정도의 반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1회에서 6회때까지 이루어진 부모-자녀 상호작용 동영상 '아이가 달라졌어요' 분석은 아이의 문제행동에 대응하는 부모의 잘못된 양육태도는 인식하였으나 동영상의 전문가 이야기만 청취할 뿐 그 활동이 어머니들 본인의 양육태도 문제 자각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장기적인 부모모임이라면 양육기술



정보 제공하는 교육적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어머니의 양육태도 문제를 자각하기 위해서는 저널 토론 활동의 효과가 훨씬 더 좋았다. 후속연구에서는 부모-자녀 상호작용 동영상 분석보다 어머니들 본인의 동영상이나 본인의 양육문제를 기록한 저널 내용으로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 어머니가 본인의 양육문제를 자각 및 해결하는 측면에서 더 효과적일 것이다.

## 참고문헌

- 권정숙·최석란(2003). 반성적 사고경험에 나타난 유아교사의 반성적 사고과정. 열린유아 교육연구, 8(2), 113-133.
- 김세루·홍지명·홍혜경(2010).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어린이미디어연구, 9(2), 113-132.
- 김차미(2012). 부모코칭 프로그램을 통한 모-자녀 상호작용 변화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 교육대학원 아동심리치료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태미(2012). 반성적 사고를 강화한 STEP에 대한 부모의 경험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노진형(2005) 반성적 사고 중심의 모자 상호작용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발달지체유아 모자에 대한 적용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교육학박사 학위논문.
- 민성원(2010).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노복지전공. 석사학위논문
- 박응임(1995). 영아-어머니간의 애착유형과 그 관련변인 영아-어머니간의 애착유형과 그 관련변인.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해미(1994). 자녀 양육행동과 관련된 부모의 스트레스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은정(2003). 반성적 사고와 전문가 교육. 학생생활연구 28, 31-54.
- 안소연(2011). 모-자녀 중심 미술치료가 모-자녀 상호작용 향상에 미치는 효과.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연숙(2002). John Dewey의 반성적 사고에 기초한 교육방법. 식품산업연구지 3, 89-996.
- 유기웅·정종원·김영석·김한별(2012).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박영사 출판사.
- 이랑(2003). 자녀양육태도 및 양육스트레스에 따른 부모교육요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 대학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명지(2010). 연구자의 '반성적 사고중심 소집단 부모교육 모임'.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아동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선애(2012). 양육스트레스와 참여동기가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가 후 양육태도 변화량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평생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이양희·이정미(2001). 영유아용 모-자녀간 상호작용 행동평가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3(1), 129-144.
- 이영미(2006). 웹 기반 토론에서 반성적 사고 능력 촉진을 위한 질문생성 전략의 적용 효과. 교육방법연구 18(1), 95-118.
- 정계숙·노진형(2006). 부모역할에 대한 자기반성의 부모교육을 위한 함의. 열린유아교육연구, 8(11), 79-105.
- 정계숙·이은하·고은경(2006). 부모-자녀 놀이치료 과정에서 어머니의 자기보고에 나타난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반성과 그 의미. 아동학회지, 27(6), 13-22.
- 조경선(2007). 토론학습을 통한 도덕 수업의 활성화.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윤리교육 석사학위논문.
- 조영미(2010). 육아일기 쓰기를 통한 부모 자기 반성적 사고 변화의 교육적 의미.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 석사학위논문.
- 최일순(2011). 토론과 논술을 활용한 한문과 교육방법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한문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황소영(2011). 또래관계 형성과정에서의 외톨이 유아의 사회적 행동 변화 탐색. 중앙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전공 박사학위논문.
- Abidin, R. R.(1990). *Parenting Stress Index(PSI)*.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 Abidin, R. R.(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The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4), pp. 401-412.
- Ainsworth, M. D(1973). The development of infant-mother attachment. In B. M. Caldwell & H. N. Ricciuti(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Vol. 3(pp.1-94).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harles S. Carer, Michael F. Scheier(2013). 성격심리학 성격에 대한 관점. 학지사.
- Collins, A.(1991). Cognitive apprenticeship and instructional technology. In L. I. B. F. Jones(Ed.), *Educational values and cognitive instruction: Implications for reform*(pp.119-136). Hillsdale, NJ: Erlbaum.
- Dewey, J.(1993). *How we think*: Boston : D.C. heath and company.

- Hatton, N., & Smith, D.(1995). Reflection in Teacher Education: Towards Definition and Implementation.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11(1), 33-49.
- Heath, H.(2000). Using your values to raise your child to be an adult you admire. Seattle, WA: Parenting Press.
- Kuczynski, L.(2003). *Handbook of dynamics in parent-child relations*. California, To: Sage Pub.
- Lazarus, R. S. & Folkman, S.(1984). Stress process and depressive symptomatolog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5, pp. 102-113.
- Maccoby, E., & Martin, J. (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Parent-child interaction. In E. M. Hetheringto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1-101, New York: Wiley.
- Schon, D.(1983). *The reflective pratitioner: How professionals think in action*. New York: Basic books.
- Whipp, J. L.(2003). Scaffolding critical reflection in online discussions.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54(4), 321-333.

·논문접수 10월 23일 / 수정본 접수 11월 24일 / 게재 승인 12월 23일

·교신저자: 이재경, 산들마을현대어린이집 원장, 이메일 whgdkgu@hanmail.net

## Abstract

### **A study on the changing process of parenting attitude through self-reflective parent discussion group focused on mother-child interaction**

Jae Kyung Lee

This study examined how mothers with high parenting stress change their parenting attitudes by participating in a reflective discussion group. The study took place in a child care center located in city E, Gyeonggi-do where three mothers were observed by a researcher for 11 weeks. The following sources were used to collect data: video recording of the mother-child interaction, 11 times of direct observation, the mothers' journal and the researcher's journal.

The results of this study highlights that in a reflective parent discussion group, the mothers' high parenting stress decreased as they objectively recognized their parenting attitude problems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each other's different opinion. The mothers were also able to redefine the parenting attitudes they need. Moreover, this study suggests that reflective thinking plays a key role in solving parenting problems. Overall significance of the study is that the mothers were able to independently solve their parenting attitude problems and related stress by improving their reflective thinking skills through participating in a parent discussion group, and thus become better mothers.

Key words: reflective thinking, parenting stress, parenting attitude, mother-child interaction, parent discussion group